



'월드컵 16강 진출' 축구대표팀 금의환향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골키퍼 야신 눈부신 '선방쇼'... 모로코, 승부차기서 스페인 꺾고 8강 진출

'무적함대' 스페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로코의 짝물 수비는 견고했다. 정교한 태클을 성공하는 수비수를 모두 제치더라도 수문장 '야신'이 최후방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튼튼한 수비를 내세워 모로코는 처음으로 본선에 나선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8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모로코는 7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과 월드컵 16강전에서 전 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120분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스페인은 63%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했다. 경합 상황을 뺀 모로코의 점유율은 20%

로 스페인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이같이 공을 소유하며 공세를 폈는데도 스페인은 위협적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축구 기록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본선에서 가장 적은 전반 슈팅 수(1회)를 기록할 정도로 고전했다. 유효슈팅은 전반에 하나도 없었고, 120분간 혈전을 치른 경기 전체로 넓혀 봐도 2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모로코 수비수들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파울 없이도 과감한 태클로 스페인 공격수들의 전진 드리블을 막았고, 각종 볼 결합에서 승리하며 파이널 서드(경기장을 세 구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위 공격 구역)에서 스페인의 패스워크를 억제했다.

이 경기뿐 아니라 모로코는 월드컵 내내 압도적인 수비력을 선보였다. 4경기에서 실점은 한 번뿐이다. 이마저도 자책골로 상대 선수에게는 아직 골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스페인처럼 조별리그 상대 3팀도 공짜 묶였다. 네 경기에서 모로코가 허용한 평균 유효슈팅은 2회뿐이다. 경기 중 찾아오는 2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모로코를 꺾기 힘들게 되는 셈이다. 유효슈팅 기회를 잡았다고 다가 아니다. 수문장 야신 부누를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옛 소련의 전설적인 골키퍼 레프 야신과 외래어 표기법상 똑같이 '야신'으로 표기되는 모로코의 골키퍼 야신 부누는 이날 120분 내내 방심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 나온 다니 올모의 위협적 프리킥을 몸을 날려 쳐내며 시동을 건 부누는 승부차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름값'을 했다. 1번 키커로 나선 사라비아야가 또 한 번 골대를 맞추며 실축한 스페인은 2번 키커 카를로스 솔레르의 슈팅마저 부누의 선방에 막혀 위기에 몰렸다. 3번 키커로 주장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나섰고, 부누가 또 한 번 몸을 날려 슈팅을 쳐내며 모로코의 8강을 이끌었다. 모로코는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아랍 국가이기도 하다. 아울러 1990년 카메룬, 2002년 세네갈, 2010년 가나에 이어 8강까지 올라간 네 번째 아프리카 팀이 됐다. /연합뉴스

### "축구협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축구의 미래 있을 것" 손흥민 트레이너 쓴소리 '화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 안택수 씨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한 쓴소리를 남겼다. 안택수 씨는 7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가대표팀 숙소) 2701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2701호가 왜 생겼는지를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한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손에서 열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니들이 할 일을 해주는데 뭐? 외부 치료? 안생(선생님)이 누구냐고? 축구판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니들은 삼류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안택수씨는 대한축구협회 의무팀과는 별도로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이번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과 같은 숙소에서 머물며 손흥민 등 선수들의 몸 관리를 해준 인물이다. 안택수씨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는 손흥민 외에 조규성, 정우영, 손준호, 김진수, 황의조 등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좋아요' 표시를 누른 것으로 확인된다. 안택수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새벽 2시까지 선수를 몸 관리에 힘쓰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협회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이라는 점에서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측은 "예전 A매치 때도 손흥민 선수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며 "다만 협회가 채용하려면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분의 경우 그 부분이 갱신되어 있지 않아서 협회에서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스위스전 후반 22분에 대회 첫 헤트트릭을 기록하고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포르투갈, 스위스 6-1로 대파하고 8강행 '막차' 호날두 대신 선발 출전 하무스 헤트트릭 맹활약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대파하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8강행 막차를 탔다. 포르투갈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스위스와 경기에서 6-1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은 2006년 4위에 올랐고 2010년과 2018년에는 16강, 2014년에는 조별리그에서 각각 탈락했다. 포르투갈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따돌린 모로코와 준준결승에서 맞대결한다. 포르투갈은 이날 간판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다. 호날두는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는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호날두가 월드컵, 유럽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 A매치를 벤치에서 시작한 것은 2008년 유럽선수권 스위스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31경기 연속 선발로만 뛰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호날두 대신 선발로 나온 곤살루 하무스가 헤트트릭을 달성하며 펄펄 날았다. 하무스는 전반 17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왼발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2-0이던 후반 6분에는 디오구 달보트의 땅볼 크로스에 왼발을 갖다 대

며 3-0을 만들었다. 또 4-1로 앞선 후반 22분에는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달려 나오는 상대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슛으로 이번 대회 1호 헤트트릭의 주인공이 됐다. 포르투갈의 39세 베테랑 페르지는 전반 33분 헤딩 슛으로 2-0을 만들어 역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나온 최고령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호날두는 5-1로 앞선 후반 29분에 중앙 펠릭스를 대신해 교체로 투입됐다. 이날은 경기 도중 간간히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호날두는 후반 30분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섰다지만 상대 수비벽에 막혔고, 후반 38분에는 상대 골문을 열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0-4로 뒤진 후반 13분에 마누엘 아칸지야 한 골을 만회한 스위스는 이후 두 골을 더 내주고 5골차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카타르 월드컵 8강이 모두 가려졌다. 16강전을 마친 카타르 월드컵은 이를 휴식기를 갖고 한국 시간으로 10일 0시에 크로아티아-브라질, 오전 4시 네덜란드-아르헨티나의 경기로 준준결승을 시작한다. 11일 0시에는 모로코-포르투갈, 11일 오전 4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4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 16강 스위스전에서 교체멤버로 출전해 승리한 뒤 동료들보다 먼저리커룸으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